



칼 슈미트 로트루프(Kal Schmidt-Rottluff, 1884-1976),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1918년, 목판화, 39.1x50cm, 로스엔젤레스 예술 박물관, 미국

**성화
해설**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9점의 연작 판화 가운데 한 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흑백의 강렬한 대조를 통하여 잘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음식을 잡수시고 손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다. 이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부활하시어 여전히 활동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

입당송 시편 66(65),1-2

제1독서 사도 3,13-15,17-19

화답송 시편 4,2,4,7,9(◎7ㄷ)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또는 ◎알렐루야.)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2독서 1요한 2,1-5ㄱ

복음환호송 루카 24,32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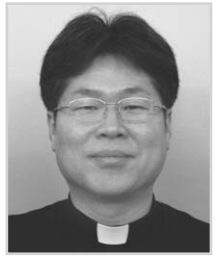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루카 24,35-48

영성체송 루카 24,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새순이 가냘프게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나뭇가지에 자신의 존재를 선보이는 봄이였습니다. 저는 산속 피정의 집에서 나무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위로 올라갈수록 줄기가 가늘어지는구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줄기는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버리지 못하고 모두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 그러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맨 위의 나뭇가지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리기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 나뭇가지도 자신의 역할이 있을까? 그래, 맨 위의 가지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태양이 떠 있는 곳으로 나무를 안내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 위의 여린 듯 보이는 가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도 책임자가 하는 역할이 구성원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고 삶의 지혜를 통해 바른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의 책임자도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부활이 되면 언제나 교우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죠?” “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 “매일매일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올라가는 만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고 오르면 여름 태풍이나 비바람에 뿌리까지 뽑혀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곧 부활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연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여 모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어 놓는 것도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안에는 이미 부활

의 싹이 움트고 있으며 부활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짧은 한 마디에 제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안, 슬픔, 절망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걱정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한 마디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모두 녹아 있으니 더 물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식사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신 후 당신이 겪으셔야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주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부활하여 자신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더 강해진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우선 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통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 또한 “주님, 전 괜찮아요. 당신으로 행복하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루카 24, 36)

어린이처럼



강인봉 베네딕도 | 가수

어린이 미사는 늘 번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사실, 제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어린이라도 한 시간 정도의 미사시간 내내 신부님께 집중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겠죠(물론 어른의 경우도 별로 다를 게 없겠지만...). 더욱이 어린이 미사가 주일 아침 일찍 있는 본당의 경우에는 늘 미사 시작할 때와 비교해 끝날 때의 참석 인원이 두 배 이상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왔다갔다 떠들고, 때로는 싸우고, 휴대전화나 장난감을 갖고 노는 어린이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사 중에 벌 받는 어린이도 생기고 신부님께서도 한두 번쯤은 화난 목소리로 꾸중을 하셔야 겨우 미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셈이지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너무 통제를 못 한다고, 신부님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안이랬어”라는 상투적인 말로 어린이들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끄러운 어린이 미사를 무척 좋아합니다. 성당을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무척 부럽기조차 할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늦잠도 자고 컴퓨터도 좀 해야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야 하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성당에 나와 성가 연습을 하며 까르르 까르르 웃고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당에 나

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미사 참례가 신자로서의 의무라서? ...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나 주변 교우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신앙인으로서의 체면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 보곤 합니다.

거룩함과 기쁨, 경건함과 즐거움은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예절은 당연히 갖추어야 하고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뿌리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성당에서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일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신나고 재미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곳” 이 바로 성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시다던 어느 신부님의 말씀처럼, 가야만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가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림으로 성당을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도 부모님 앞에서는 늘 철없는 자식이듯이 주님 보시기에 저희는 늘 돌보고 가르쳐야 할, 부족하지만 귀여운 어린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시골 외할머니 댁을 찾아가듯, 오랫동안 떠나왔던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듯 주일날 성당을 향하는 발걸음이 늘 경쾌하고 설레기를 바랍니다. 미사시간에 웃고 떠들고 그러다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도 다음 주 미사에 열심히 웃고 떠들러 나오는 어린이들처럼 뭐 재미있는 일 좀 없나 하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7

체외수정으로 얻은 배아 역시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체외에서 얻은 인간 배아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은 그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 ‘생물학적 물질’로 인간 배아를 만들어내는 일은 부도덕하다” <생명의 선물 제1부 5항>.

교회는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많은 배아를 만들어내어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파괴되거나 냉동되어 보관 후 실험실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착상된 배아가 여럿인 경우 낙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연구자는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에 따라 인간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등 다른 인간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체외수정을 반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배아도 인간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배아나 태아에 대해서도 어른의 시신처럼 상업적 거래를 금합니다.



가톨릭노동장년회(CWM)는 신자 노동자 부부들이 모여 활동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목수이셨던 예수님(마르 6,3)이 바로 저희 동료요 친구입니다. 주님의 “나를 따라오 너라”(마르 1,17)는 말씀에 즉각 응답한 사도들처럼 노동으로 노동현장을 복음화하는 사도들이므로 저희는 노동계 안에 살아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저희는 바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노동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저희 회원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의 육체노동이 ‘주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기도요, 저희가 일하는 작업현장이 미사를 드리는 제대(祭臺)가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새벽을 열어갑니다.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하던 지난날 가톨릭노동청년회(JOC) 회원들은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존엄한 인격을 보장받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68년의 강화도 심도직물사건 이래 가톨릭 노동 청년들은 김수환 추기경님과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 신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노동현장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들의 후배인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라고 하신 대로 늘 동료들에게 다가가는 형제가 됩니다.

2009년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 목표는 ‘무관심을 넘어서’입니다.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저희는 늘 예수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청합니다.

오늘의 노동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립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가족과 벗들, 사회에 대하여 ‘죄인’처럼 지냅니다. 안정된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국제연대를 통한 ‘한 형제 운동’이 절실한 이주노동자들은 환율급등으로 실질임금이 반 토막이 나고 일자리마저 잃어갑니다. 주님께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창세 3,19)고 하셨는데, 땀 흘려 일할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 현실이 노동자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수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저희 동료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두가 웃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식

오늘(4월26일)은 '이민의 날'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5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1일(금)은 '근로자의 날' 로 교구청 휴무합니다.

5월3일(일)은 성소주일로 성소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구청 별관(구 사목센터) 축복식

서울대교구 사목센터의 명칭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청 별관'으로 변경되었으며, 4월17일(금)에 '교구청 별관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개원식 및 국제학술대회

서울성모병원 개원식 및 국제학술대회가 교구청 정진석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4월30일(목) 오전 10시 30분, 병원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 문의: 2258-8071

본당 사무장 및 사무원 피정

- 1차: 5월21일(목) 오전 10시~22일(금) 오후 1시
- 2차: 5월28일(목) 오전 10시~29일(금) 오후 1시
- 곳: 용문 청소년 수련장(경기도 용문) - 당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마당에서 출발 / 주최: 교구 사무처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4월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1993년, 용인
- 4월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1986년, 용인
- 5월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1966년, 용산

2009년 성소주일 행사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시편 73,28)”를 주제로 5월3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혜화동)에서 성소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 문의: 727-2123

성소주일 미사 (11시)	·집전: 김운회 주교 외 사제단(대운동장) ·고해성사(미사 전 30분, 대운동장 주변)
기념행사 (13시~15시)	· Free Style 길거리 농구대회(농구장) ·목주 만들기(낙산마루 정자) ·수단을 입고 싶어요!(대건관 성모상 앞) ·줄넘기(대운동장) ·성소상담(도서관 앞)
(15시~15시30분)	·성소주일 O·X퀴즈(대운동장)
성체강복(15시30분)	(대성당)
상설행사 (10시~16시)	·제의 및 제구 전시회(성신원 전래박물관) ·사진전 및 슬라이드 상영 (진리관 1층 로비, 3강의실) ·신학생의 삶을 그린 영상물 상영 (진리관 3층 대강의실) ·성화전(대건관 옆 야외 전시장)
(13시, 14시)	·대성당 유리화 설명(대성당)

교구청 알림

경찰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곳: 4월30일(목) 12시, 서울지방경찰청 미카엘성당 / 대상: 전의경 자녀를 둔 부모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향심기도(월피정)

-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상지 피정의 집
- 대상: 누구나 / 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
- 문의: 010-8674-1105(www.hyangsim.com)

직장인	5월3일(일) 9시30분-16시	회비:
일반인	5월4일(월) 9시30분-16시	1만5천원

서울가톨릭청소년회 '09 청소년 유럽테마여행 (서양미술사 여행) 사업설명회

- 대상: 관심있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 727-2088
- 때, 곳: 5월10일(일) 1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제8차 부부여정 운영자 양성교육

- 대상: 일반 부부, 본당에서 부부여정을 운영할 부부, 성직자, 수도자(회비: 부부 10만원)
- 때, 곳: 5월24일-6월21일 매주(일) 14시-18시(5주), 구의동성당 / www.ihome.or.kr
- 문의: 727-2070 사목국 가정사목부

부활시기의 '감사'와 '사랑' 운동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실천사항〉

- 1) 곁에 있는 이들(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사랑의 문자 보내기
- 2)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남자 수도회	5. 3. 14시	인천 가르멜 수도원	010-3169-7416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5. 3.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도미니코 수도회	5. 3. 10시-16시	서울 수도원	010-4524-5798
로사리오성모의도미니코수녀회	5. 3. 14시	성북동 한국 본원	011-1731-7123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	5. 3. 10시-17시	수녀회 본원 (명동 성당 뒤)	3706-3233
서울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회	5. 3.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성령 선교 수녀회	5. 3.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5. 3. 10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2층	010-2895-6430
성 바오로 딸 수도회	5. 2. 15시	미아리 본원	010-2264-2941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5. 2. 14시	뚝섬 수도원	010-9204-126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5. 3. 10시-17시	정릉본원(성소주일행사)	016-332-2885
예수의 소화 수녀회	5. 3. 14시-17시30분	수녀회 본원(광주)	010-9250-5754
피터미의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5. 3. 14시	수지 본원	011-9176-1212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5. 3.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한국 외방 선교회	5. 3. 13시	한국 외방 선교회 본원	010-4555-7526

알림

모임

4지구 일일 대피정

· 강사: 차동엽, 서정형 신부(미사·말씀·안수)
 · 때, 곳: 5월1일(금) 9시-18시, 혜화동성당(전철 4호선 1번 출구) / 016-634-5265 4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예수의 꽃뿔네 형제회·자매회 성소주일 행사
 · 대상: 유치부이상, 대학·일반 남녀 / 011-806-6879
 · 때, 곳: 5월3일(일) 9시30분-16시, 음성꽃뿔네
 · 홈페이지 www.kkotbs.or.kr 참조

성지 도보순례 피정

· 대상: 젊은 미혼 여성 / 회비: 3만5천원
 · 때, 곳: 5월30일(토) 9시-31일(일) 18시, 솔피·해미 / 문의: 011-9910-1198 예수수도회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론은 유명강사가 하며 매주 바뀜)

도림동성당 '은혜의 밤 피정'

· 강사: 정윤화 신부(인천교구 관리국장)·말씀·안수
 · 찬양: 주바라기 선교회 / 833-9439, 011-9860-5191
 · 때, 곳: 4월28일(화) 오후 7시30분, 대성전

11지구 치유 대피정

· 강사: 차동엽·오수영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 때: 5월11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 내용: 개포동성당 / 내용: 말씀, 미사, 치유
 · 문의: 579-9870 11지구 성령쇄신봉사회(회비 없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내용: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찬양, 나눔
 · 때, 곳: 5월2일(토) 22시-5시, 동성고등학교(혜화동) 백주년 기념관 / 019-201-4924, 019-470-2416
 · 찬양팀(악기, 보컬) 모집중 (www.totustuus.or.kr)

가정선교회 29차 가정 영성 성숙 1일 피정

· 대상: 가정치유와 성화를 원하는 누구나(회비 없음)
 · 주제: 가정과 성모(정원순 신부 가족치유)/미사준비
 · 강사: 강인산 신부(청주교구 총대리) / 김밥 제공
 · 때, 곳: 5월6일(수) 10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77-1773, 010-5674-8511, 011-9135-7815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와 124위

사복사성을 위한 철야기도회(문의: 043)533-5710)
 · 기도: 김진방 회장(미사: 이승용·류한영 신부)
 · 때: 5월2일·16일(토) 21시30분-4시(22시30분 미사)
 · 곳: 배티성지(주최) 조립식 강당(성사, 면담)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

· 집전: 유용덕 신부 / 문의: 312-0662, 011-245-0121
 · 때: 4월27일(월) 13시30분-17시(기도: 박용해)
 · 곳: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 / 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열린 치유 대 피정'

·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 강사: 정규철 신부
 · 미사: 한성호 신부 / 은혜의 시간: 한정옥 부회장
 · 때: 5월2일(토) 낮 12시30분-오후 5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문의: 757-1416, 7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3·4지구 1일 피정

5월4일(월)	9시30분-16시30분, 의정부 주교좌성당(중식제공) 강사: 정영우 신부(출천교구 성령지도 신부)
5월13일(수)	20시-1시, 의정부 녹양동성당 / 011-1746-2120 강사: 서창은 회장

서울대교구 철야기도회

· 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 1주: 5월1일(성모의 밤), 2주: 5월8일(강사: 조기연)

1주	치유상담, 양형영성체	2주	중개기도, 치유기도, 안수예절
3주	연속 영혼을 위한 기도회	4주	성체거동
5주	가정미사	주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 때, 곳: 5월1일(금)3일(일),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관(조정) / 043)213-9103, 010-4400-1344(숙식 제공)

7지구 성령충만, 은혜충만, 일일 대피정

· 강사: 고영민과 선교대상 / 회비: 3천원(김밥 제공)
 · 때: 5월5일(화) 10시-19시(10시 미사로 시작)
 · 곳: 태릉성당(전철 6호선 화랑대역 3번 출구)
 · 문의: 010-2239-9393 7지구 성령봉사회

광주대교구 재경성소후원회 피정

· 때, 곳: 5월18일(월)-19일(화), 광주대교구 지리산 피아골 피정집(방배동 가리따스 수녀원 10시 출발) / 5월 재경성소후원회 월례미사는 없음
 · 문의: 062)380-2280, 1 광주대교구 성소전담

15-B(양천)지구 부활 일일 대피정

· 강사: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창진 신부, 에프렘 수녀)
 · 때, 곳: 4월27일(월) 9시-17시, 목동성당 대성당
 · 문의: 011-787-4036 15-B지구 성령쇄신봉사회

· 낮 기도회(전철 5호선 오목교역 8번 출구, 목동역 5번 출구 5분거리) / 회비 없음(김밥 제공)

교육

젊은이 영어성경 통독 첫걸음

· 때, 곳: 매주(토) 오후 7시30분, 가리따스 수녀회(주최) / 문의: 011-9742-2321

영상모험 지도자교육 제9기 모집

· 대상: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 평신도 지도자
 · 때: 5월11일부터 매주(월) 14시-17시(6주과정)
 · 곳: 성 바오로 딸 수도회(주최)-전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회비: 10만원) / 944-0800, 016-738-1999

미술치료지도사 과정(3단계 과정 / 단계별 10주)

· 대상: 미술치료에 관심있는 모든 분(회비: 단계별 30만원-교재비 포함) / 문의: 379-4803
 · 때: 초급 5월9일-7월18일, 중급 7월25일-10월10일, 고급 10월17일-12월19일 매주(토) 오후 1시-7시(계좌: 신한은행 100-022-727249)
 · 곳: 나자렛 성가회 교육원(주최)-종로구 평창동

모집

명동성당 로고스 합창단 2009년 정기 신입단원 모집

· 대상: 성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교우 및 예비자 20-30대(오디션: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 문의: 011-9602-6964 한선아
 · 때, 곳: 5월10일(일) 18시, 문화관 2층 소성당

2009학년 후기 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 내용: 행정대학원, 문화영상대학원, 경영대학원
 · 접수: 5월11일(월)-15일(금)까지(우편접수 가능)
 · 행정, 문화영상대학원: 반포소재 / 경영대학원: 부천소재 / 2164-4856-8(www.cuk.ac.kr)

'한마음 공동체 나눔의 집' 봉사자 모집

· 서울역 인근의 쪽방, 행려인,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메일)하는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단체임(주일과 평일에 주방과 배식을 담당할 남녀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 3789-5425 한마음 나눔(지도: 조창수 신부)

2009년도 후기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석사과정) 모집

· 대상: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전공불문)
 · 모집부문: 석사과정(교회음악과) / 393-2213~5
 · 모집기간: 5월11일(월)-22일(금)까지
 ·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2009 세계성령대회 통역봉사자 모집

· 내용: 안내, 미사, 강의 통역(해당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 일정: 6월1일-3일(자원봉사), 6월4일-7일(본대회), 6월8일-9일(성지순례) / 파트타임 봉사 가능
 · 때, 곳: 6월1일(월)-9일(화), 음성꽃뿔네
 · 문의: 010-3230-5852(www.loveinaction.co.kr)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곳: 5월2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56-347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삼성동성당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百花爛漫) 월례미사

· 대상: 회원 및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동참할 교우
 · 때, 곳: 4월29일(수) 10시, 삼성동성당 / 512-0195

영어로 배우는 성경공부와 영어미사

· 때, 곳: 5월3일(일) 15시-1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당일접수(www.oblates.or.kr)
 · 문의: 010-2778-7145 오블라트 선교 수도회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4월30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별관

첫토요일 성모성심 가정 봉헌 미사

· 대상: 성모 성심 안에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 분
 · 때, 곳: 5월2일(토) 14시-16시, 새남터성지
 · 문의: 711-2507 성모 성심 가나안 봉사회

첫토요일 신심 다락방 미사

· 집전: 이범주 신부(중식 제공) / 주최: 암사동성당
 · 때: 5월2일(토) 오전 11시(30분전 묵주기도)
 · 곳: 암사동성당(주최) / 8호선 암사역 1번 출구
 · 하느님의 뜻 영성 교육: 오후 2시 / 442-8511

예수 성심 기도 미사(절두산 후원 로사리오회)

· 순교신심 기도하고 싶은 분(전대사를 위한 미사)
 · 때: 5월1일(금) 12시(기도)·13시(미사)
 · 곳: 절두산 순교성지 성당(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11-205-8003(중식제공)

안내

팜과 클래식 만남(Garden Concert)

· 선교를 위한 자선 음악회(회비: 1만원) / 010-7101-9302
 · 때: 5월3일(일) 15시-18시 / www.columban.to
 · 곳: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주최)-둔암동

가정문제상담 '아름다운 가정 상담소'

· 내용: 가족 갈등, 폭력, 부부, 이혼위기, 노인, 교정치료 온라인 상담(www.bhc.or.kr)
 · 매주(월-금) 9시-18시 / 문의: 3288-1516

삼성산 무료 가정방문 호스피스 봉사

· 대상: 6개월 이내 임종 예상 모든 환자
 · 지도: 이경식 박사, 송광섭 신부
 · 문의: 887-2311 삼성산 호스피스 봉사회(주최)

성 바오로 병원 종합건강관리센터

· 2009년도 공단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을 실시중(대상자분들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 바람)
 · 때: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 958-2393, 2369

동두천 가르멜수도원 후원금 담당자 변경

· 동두천 가르멜수도원 건축후원금을 담당하였던 관리국장 이정옥 형제가 3월16일(월)자로 면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후원금 문의: 010-3134-1489 (재)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명동성당 5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 환영식: 5월3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별관

목요반	오후 7시30분	교육관 305호	774-1784
주일반	오후 4시		

· 명동성당 성지미사: (월토) 오전 10시, 지하성당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2009년

명동성당 5월 문화축제

· 축제기간: 5월1일(금)~31일(일) / 문의: 774-1784

제3회 젊음이어! 명동을 노래하자 (젊은이들과 연예인이 함께하는 오프닝 공연)	1일(금) 20시, 야외무대
국악으로 들려주는 하늘 이야기 (하늘's 토리 퓨전 국악 공연)	2일(토) 20시, 야외무대
진눈깨비(유미별 무용단)	3일(일) 13시, 야외무대
마임공연	3일(일) 11시, 성모동산
항기가 있는 오월의 미사	김청자(메조 소프라노) 3일(일) 12시 미사 중, 대성당 임형주(팔페라 테너) 10일(일) 12시 미사 중, 대성당
(교중 미사 특송)	임선혜(소프라노) 24일(일) 12시 미사 중, 대성당
제5회 명동 어린이 합창제	5일(화) 20시, 대성당
한국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음악회	6일(수) 20시, 대성당
피아노로 드리는 기도(노영심 음악회)	7일(목) 12시, 대성당
신관용 JAZZ의 밤	9일(토) 20시, 성모동산
아도라레 찬양무용	9일·16일(토) 19시 미사 중, 대성당
명창 안숙선의 국악한마당	10일(일) 14시, 대성당
노래의 날개위에(요셉의원 자선 음악회)	11일(월) 20시, 대성당
단편 영화제	12일(화)~15일(금) 11시30분~13시30분, 성당 마당
성모 성월 특강	미사·특강: 조규만 주교 13일(수) 19시, 대성당
	미사: 김윤희 주교, 특강: 정은 교수 20일(수) 19시, 대성당
	미사: 정진석 추기경 27일(수) 19시, 대성당
	특강: 작가와의 만남(오정희·정호승) 27일(수) 20시, 대성당
5월의 구원 노래(퍼포먼스)	15일(금) 20시, 성당마당
제5회 생활성가축제	16일(토) 20시, 야외무대
성경을 통한 웃음치료	17일(일) 12시·19시 미사 후, 대성당
체험 아동극 '똥벼락'	17일·31(일) 11시, 성모동산
제4회 가톨릭 합창 페스티벌	18·19·21·22일 20시, 대성당
가톨릭 어린이 잔치 (아동극 공연 등)	20일(수) 10시30분~13시30분, 포스트홀
더모스트의 시네마 콘서트 (라이브 영화 음악회)	23일(토) 20시, 야외무대
본당의 날 한마음 축제 (축성 111주년 기념 한마음 잔치)	24일(일) 9시, 성당마당
서예, 다도, 꽃꽂이 전시회	24일(일)~28일(목), 폐백실
기쁜소리 합주단 정기 연주회	25일(월) 19시30분, 대성당
임선혜의 희망나눔 음악회	26일(화) 20시, 대성당
명동성당 반주단 정기 연주회	29일(금) 20시, 대성당
성모의 밤 (집전: 박신언 문시놀)	30일(토) 19시 미사 후, 성모동산
가족 놀이 마당	31일(일) 10시~14시, 성당 마당
추억의 DJ 다방	매주(일) 12시, 만남의 방
한낮 음악회(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매주(월) 12시30분, 대성당
실내악 음악회(한낮의 기쁜소리)	매주(수) 12시30분, 대성당 회랑

※성당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

뮤지컬 사도바로 '이마고데이(Imago Dei) - 하느님의 모상'

· 입장권: 성인 4만 원, 청소년 3만 원 | 예매 및 문의: 2253-9191
· 공연시간: 월·수·토·일 15시 / 목·금 20시(5월5일·12일·13일·19일 휴관)



뮤지컬 사도바로 '이마고데이(Imago Dei) - 하느님의 모상' 이 관객 2만명 돌파를 기념해 앙코르 공연한다. 4월 30일(목)~5월25일(월), 살레시오회 관구관 7층(전철 7호선 보라매역 3번 출구 도보 10분)에서 있다. '바로 해' 를 맞이하여 바로 생애의 이해와 더불어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하기 위해 완성한 작품이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해외공식초청작 '컨벤트'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031)828-5829
· 공연시간: 5월5일(화) 18시, 6일(수) 20시



제8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해외공식초청작으로서 알프스산맥에 있는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이해를 진지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5월5일(화)~6일(수),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있다. 아카펠라 선율로 울려 퍼지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음악이 극의 흐름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 후 예매 및 현장 구매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바리톤 '블라디미르 체르노프' 내한공연

· 입장권: VIP석 10만 원,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3463-2466(www.bravocomm.co.kr)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대표 바리톤 가수 '블라디미르 체르노프'의 내한공연이 5월3일(일) 오후 2시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다. 현존 최고의 바리톤으로 불리는 그는 2002년 18장조의 바리톤으로 편곡한 베르디 오페라의 탁월한 공연으로 관객이 선정한 최고의 베르디 바리톤상을 수상했다.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 후 예매 및 현장 구매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뮤지컬 '소나기'

· 입장권: VIP석 5만 원,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예매 및 문의: 399-1114-6
· 공연시간: 화~금 19시30분 / 토~일·5월5일 15시·19시(8세이상 관람 가능)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야기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단편소설 소나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소나기'가 5월1일(금)~17일(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척박한 사회에 묻혀 아날로그적인 따뜻한 감성을 잊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훈훈하고 소박한 미소를 찾아준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1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2인까지 할인가능).